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주=포커스뉴스) 전북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 교수)는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주=포커스뉴스) 전북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24일~25일 전주대 온누리홀과 지역혁신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연구재단 후원을 받아 전북사학회 주관으로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변주승 소장의 개회사와 이호인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총 3부로 나누어 13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연구자들이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지역문제에 대해 근현대 지역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일본 교토대) 명예교수의 '영화로 본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시기의 조선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될 콜로키움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변화라는 역사의 흐름을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돼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박윤근 기자 bule2737@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홈](#) > [뉴스](#) > [뉴스](#) > [교육](#)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제 학술대회 개최

2016년 06월 26일 (일) 07:54:44

정세미 기자 bhaum2730@naver.com

- 근현대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펼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 교수)는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4일에서 25일 전주대학교 온누리홀과 지역혁신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연구재단 후원을 받아 전북사학회(회장 김종수)주관으로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변주승 소장의 개회사와 이호인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총 3부로 나누어 13개의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연구자들이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지역문제에 대해 국제적·학제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근현대 지역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대학원생이 중심이 된 신진연구자의 폭넓은 학제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25일(토)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의 '영화로 본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시기의 조선사회 —영화 '망루의 걸사대'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콜로키움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변화라는 역사의 흐름을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돼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및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근현대 도시개발과 지역이데올로기의 변용'이라는 대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근대의 시작, 도시개발과 종교, 문화'라는 소주제로 두 번의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 투데이안(<http://www.today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지난 24~25일 대학 온누리 홀과 지역혁신관에서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한국의 연구자들이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지역문제를 국제적·학제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근현대 지역 이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또 대학원생이 중심이 된 신진연구자들의 폭넓은 학제 교류도 관심을 모았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에 설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 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사업 및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 지원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김종표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 교수)는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지난 24일과 25일 전주대학교 온누리홀과 지역혁신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연구재단 후원을 받아 전북사학회(회장 김종수)주관으로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변주승 소장의 개회사와 이호인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의 주제가 발표됐다. 학술대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연구자들이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지역문제에 대해 국제적·학제적으로 비교 분석하며 근현대 지역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병재기자·kanadasa@

전민일보

2016년 6월 27일 월요일 005면
사회

전주대 국제학술대회 성료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 교수)는 '근현대 동아시아 식민통치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라는 주제로 지난 24일과 25일 대학 온누리홀과 지역혁신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연구재단 후원을 받아 전북사학회(회장 김종수)주관으로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변주승 소장의 개회사와 이호인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총 3부로 나누어 13개의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연구자들이 근현대 지역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는 평이다. 윤복진기자